

배포

2026. 7. 6.(월)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LH 제7대 이성훈 사장 취임

###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주택공급에 역점”

- 공급속도 제고 및 공공임대 품질·입지 혁신,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조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위해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 산단·배후도시 조성
- 안전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정립, 국민이 기대하는 변화에도 부응 의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월)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李誠訓, 52)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성훈 신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 까지다.
-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 먼저 이 사장은 “지금은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또한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유희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속도 제고와 동시에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입주자의 삶의 품격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LH의 역할도 강조했다.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업들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를 빠른 속도로 조성하고, 최고의 주거·교육·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도 함께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국의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LH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       |     |     |     |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미영 | (055-922-3201) |
|      |       | 담당자 | 차 장 | 김병진 | (055-922-3210) |